

광주·전남 경제 이끌 유망기업 지원

시·도, 우수 中企 69개사 지정 R&D·스마트공장 확산 등 노력 용자한도 상향·우대 금리 혜택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경제를 견인할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7기 명품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지역 중소기업 25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지정서를 수여받은 기업은 ㈜디알텍, ㈜아이코디, ㈜에이스원, ㈜현대금속 등이다.

명품중소기업은 성장잠재력과 성장의지가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 100여 개사를 발굴·선정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집중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 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된 명품중소기업은 지정받은 3년간 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원 등 기업 성장목표와 성장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중앙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관련,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광주시는 내년부터 명품중소기업 이외에도 지역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뒤쳐진 지역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의 기초를 다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혁신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도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전

남 유망 중소기업' 44곳을 선정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은 3년 이상 전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성, 일자리창출 노력 등 기업의 유망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3년 동안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한도 상향(2~5억원) 및 우대 금리(0.3~0.5%) 지원과 국내 개별박람회, 수출 분야 지원사업 등 판로 지원 사업에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이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파루는 연평균 매출액 570억원을 달성, 2015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성장했고 2015년에 선정된 ㈜동양인더스트리는 1년 만에 매출이 37억원에서 56억원으로 급증해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3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진흥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품중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 지정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아직도 2018년에 머문 금호타이어 노조

단체교섭안 또 다시 부결 회사측·노조 집행부 '당혹'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회사와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또 다시 부결시켰다.

앞서 올해 초 한차례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집행부가 총 사퇴한 데 이어 새 집행부 출범 이후 경영정상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가 원만한 합의한 단체교섭안이 재차 부결되면서 단체교섭 향방이 안갯속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노조원들이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2일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과 관련, 광주와 곡성 등 조합원

총원 2천835명 중 2천524명(8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천147명(45.4%), 반대 1천376명(54.5%)으로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 측과 부결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집행부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속히 2018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교섭에 돌입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합의안에서 독소조항도 빠고 나름 얻은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 과반을 넘길 줄 알았는데 조합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주내로 현장과 내부의견 등 여론을 취합해 향후 프로세스를 짤 예정이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이번에는 통과될 줄 알았는데 부결돼 당혹스럽다"며 "아직은 노조 측에서 내부 의견 등 입장이 정리되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보다 이기주의를 앞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 29일에 한차례 단체교섭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2월 13일 노조 찬반투표 결과 반대 74.7%로 부결된 바 있다.

지역경제 관계자는 "향도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경영난으로 외부 자본을 대주주로 맞이하면서까지 우여곡절 끝에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아 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들이 합심해 도와주기보다 회사와 노조 집행부의 노력에 찬물만 끼었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디자인·환경 가전' 인기 높아

롯데백 광주점 오늘부터 할인전 15일엔 '3만원 구매' 행운권도

경기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인테리어 가전'과 '특수 목적성 가전'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테리어 가전제품은 '기능'에 집중된 기존 제품과는 달리 집안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강화한 제품을 의미하며, 또 특수 목적성 가전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소로 찾게 되는 가전제품을 말한다.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가전 전체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엘지·삼성 등 62.9%로 신장했다.

특히 공기청정기 87.2%, 스타일러 39.2%, 건조기 38.7%, 에어컨 23.7% 등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 초부터 지속된 미세먼지 영향과 폭염에 따른 관련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최초로 오픈 프리미엄 가전 디지털 전문관에서 1주년을 맞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가전 아이템 행사를 진행한다.

14일부터 25일까지 9층 프리미엄 가전 디지털 전문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로봇청소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다양한 상품이 한정 특가상품으로 준비됐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프리미엄 가전 디지털 전문관에서 고객이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으며, 엘지와 삼성을 비롯해 담채 김치냉장고는 일부 상품에 한해 최대 20~30%까지 진열상품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또 15일 단 하루 진행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LG노트북, 삼성큐브 공기청정기, 태판믹서기, 쿠쿠 전기그릴과 컨센스, 플든벨, 풍년에서 준비한 주방용품 그리고 침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착순 100명에 한해 현금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행운권 이벤트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가전 디지털 전문관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 팝업스토어가 진행돼 냉장고 상담 및 체험고객에게 감사품을 주고 구매고객에게는 S포인트 최대 40만원을 증정한다. 도철기자 dools18309@srb.co.kr

전남 10대 브랜드쌀 전국 알리기 '활발'

전남농협, 영남권 시장개척

2019년 전남 10대 브랜드 쌀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장 개척 마케팅과 고객감사 행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농협 그리고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는 각 RPC 등이 공동기획한 전남 브랜드 쌀 알리기 행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45일간 성남시·고양시 농수산물유통센터 행사 이후에도 전국 소비자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RPC는 지역의 쌀 가공제품, 귀리, 찰보리, 양파 등 다양한 고품질 농산물을 가운데 한 품목 선정해 브랜드쌀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료 증정해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고객 충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우수상을 수상한 영광군의 '사계절이 사는 집'은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강선중)의 영남권 시장 개척 활동 끝에 지난 13일부터 트라이얼마트 등 10개 매장에서 2천포(10kg) 판매행사를 진행, 구매 고객에게 찰보리 1kg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

소비자와 전문가가 뽑은 2019년 전라남도 10대 우수브랜드쌀은 해남 한눈에반한쌀, 담양



올해 전남 10대 브랜드 쌀로 선정된 전남 대표 쌀을 전국에 알리는 시장개척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숲맑은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함평 나비쌀,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보성 녹차미인쌀, 순천 나누리, 강진 프리미엄호떡, 무안 황도랑쌀, 화순 자연속애스미다. 이 브랜드쌀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시료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5월에 선정됐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라남도 및 RPC와 함께 우수한 품질의 쌀을 더욱 많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인지도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ols18309@srb.co.kr

광주은행,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 풍성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9년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03명에게 장학금과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

광주은행은 이벤트 당첨자 1등 1명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2등 2명에게는 장학금 각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벤트에 응모한 대학(원)생 중 이벤트 기간 내 신용 및 체크카드 총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03명에게 장학금과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인 유스(youth)고객의 금융니즈를 파악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hta2000@srb.co.kr

"보해양조는 한국 기업입니다"

일본 매각설 등 루머에 강력 대응 '69년간 광주·전남과 함께 성장'

'보해양조는 한국기업입니다. 일본기업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일본 자본에 매각됐다는 루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매각설 등을 확산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엄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해양조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매각설' 등 터무니없는 루머로 인해 기업 이미지 등지에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해 연말 매각설 등이 불거질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계속해서 루머가 확산되자 유포자를 적발하면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보해양조는 지난 1950년 목포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69년간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성

장해온 광주전남 대표 기업이다.

1981년부터 39년 동안 보해양조회를 운영하며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펼쳐왔음에도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시장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해가 일본 자본에 팔렸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여수, 고흥, 담양 등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기업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해양조 전체 주주 2만365명 중 외국인 주주는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독일 등 54명이며, 이중 일본인 주주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매각됐다는 터무니없는 루머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보해양조는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키는 사람을 제보해주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루머에 대한 음성 녹취나 동영상 촬영 등 제보자료는 이메일(bohae@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보해양조 박찬순 홍보팀장은 "보해양조는 목



보해양조는 '일본 매각설' 등 터무니없는 루머로 기업 이미지에 큰 피해를 겪고 있어 악의적 루머 등에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에 분사를 두고 장성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이 광주·전남에서 살고 있는 광주·전남 기업이자 한국기업"이라며 "일본 매각설 등 루머를 확산시키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hta2000@srb.co.kr

중진공 광주본부,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철)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구축·육성사업' 2차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소용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최대 4천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과 우수기업에는 추가 보조금 지급과 내년 사업 선정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진공 지원으로 키워드 광고, 검색엔진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배너 광고 등 쇼핑몰 홍보를 실시해 수출액이 10배 증가했다"며 "올해는 중진공 지원으로 쇼핑몰 리뉴얼을 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시범 사업기간 동안 47개 사업 참여기업이 411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1차 모집을 통해 현재 5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15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